

2025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환대, 돌봄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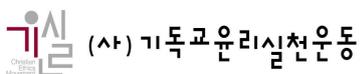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5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환대, 돌봄

- | 발간일 2025년 10월 23일
- | 발행인 지형은
- | 편집 김현아
- | 디자인 운동혁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열며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여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건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는 시민사회의 한 주체로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비전과 섬김의 현장을 공유하고자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2009-2010), 협동조합(2012), 탈핵 및 대안에너지(2013), 부교역자 인권 및 처우 개선(2015-2016), 경제양극화와 가계 부채 해소(2017), 교회와 공간(2019) 등의 주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지역교회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회 내부의 건강성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와 맥락에서 개최된 올해 2025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주제는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환대, 돌봄”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인 시행됩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 단위 및 관련 기관에서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가사, 이동, 주거 등의 제도와 서비스 지원이 확장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오며 기독교의 이웃 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환대와 공존의 한국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회들은 지역 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참여해 고령화, 약자의 고립, 지역사회 소멸 등 한국 사회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통해 왜 지금 다시 한국 교회에 이웃, 환대, 돌봄에 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성찰하고,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하나의 계기와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5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환대, 돌봄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김상덕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Ⅰ 인사말 지형은 (기윤실 이사장,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Ⅰ 발제

돌봄 서비스 현황 및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의의와 한계 - - - - 9p

조흥식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기윤실 이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마을과 교회의 협력 방안 - - - - 21p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Ⅰ 교회 사례 나눔

곡강교회 김중하 목사 - - - - - 41p

성락성결교회 마재열 전도사 - - - - - 48p

약대중앙교회 이세광 목사 - - - - - 54p

오빌교회 오만중 목사 - - - - - 64p

Ⅰ 전체 대화

[발제 1]

돌봄 서비스 현황 및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의의와 한계

조흥식 명예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12월 23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기준)에 65세 이상 인구(약 1,024만 명)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 후기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재가(在家)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파편화와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거나,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발생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통합돌봄(integrated care)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2024년 2월 제21대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2024,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러한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 발의 의원실 협의, 상임위 통과 및 법사위 논의 과정이 있었다. 과거 총 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법 명칭만 하더라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2020; 전재수 의원, 2021.),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2023),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202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의원, 2023),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2023) 등 다양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재적 273명 중 출석 205명, 찬성 203명, 기권 2명(반대 0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2024. 2. 29)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재가 및 공포(2024. 3. 2.)되었다(서동민, 2025).

이 법은 제정된 지 2년 후인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해 2025년 6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한 돌봄통합지원을 구체화할 방안과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에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등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집단 당사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통합돌봄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우선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의 시행이 갖는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통합돌봄의 정의와 가치, 원칙

1) 통합돌봄의 정의

통합돌봄(community care 또는 integrated care)은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로서, 이는 단순한 서비스 나열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기관과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분절된 복지시스템의 사업과 구분된다.

통합돌봄은 1970년대 영국의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에서 시작되어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2) 통합돌봄의 가치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가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사람중심 돌봄(person-centered care) 가치로서 서비스 대상자 개인의 욕구와 선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돌봄 계획수립과 제공과정에 대상자와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중심 통합보건서비스 프레임워크(IPCHS: Framework

on Integrated People-Centered Health Services)의 발표를 통해 사람중심 통합돌봄으로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①사람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②거버넌스와 책무성의 강화, ③서비스 제공의 모형 재정립, ④분야 내 및 분야 간 서비스의 조정 기능, ⑤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환경조성 등을 제시하였다(WHO, 2015; 김홍수 외, 2021).

둘째, 존엄과 존경(dignity and respect)의 가치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 AIP)’의 가치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 접근(holistic approach) 가치로서 신체적,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모두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회복과 연대(community resilience and solidarity)의 가치로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중시하는 것이다.

3) 통합돌봄의 4대 원칙

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돌봄은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통합성과 연계성(integration and continuity)의 원칙이다. 이는 서비스 통합성은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모두들 끊어짐 없이(seamless)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연계성은 특히 다직종 전문가들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팀 기반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이다.

둘째, 지역 주도와 책임성(local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의 원칙이다. 지역 주도의 원칙은 지역 맞춤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해야 하는 원칙이다. 아울러 책임성은 지속가능성과 결합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셋째, 보편성과 포괄성(universality and comprehensiveness)의 원칙이다. 보편성은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를 지향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만 하는 원칙이다. 아울러 포괄성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만성질환 관리, 재활, 나아가 생애말기 돌봄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넷째, 역량강화와 자기관리(empowerment and self-management) 원칙이다.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기 스스로 삶을 관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3. 돌봄서비스 현황

한국의 돌봄서비스는 인구구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개편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요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데,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 중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근거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시행)으로 이 법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징은 돌봄을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했는데,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와 시설서비스(요양원 등)로 구분되며, 재가서비스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황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자 및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후기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돌봄의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10년간 약 50% 증가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노인 돌봄서비스 추세(2015-2025년)

연도	노인 인구(만명)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만명)
2015	660	52
2017	710	65
2019	770	75
2021	850	85
2023	930	95
2025	1,000	11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ssis.or.kr)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방 및 일상생활지원 중심)

2020년 1월에 정부는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6개 노인돌봄사업(돌봄기본, 종합, 단기가사, 독거노인 자립지원/사회관계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연계)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했다. 그 목적은 장기요양 등급외의 사람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안부),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인력 체계는 전담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따라서 전문 사회복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2>를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수는 2020년 대비 약43% 증가하였고, 서비스 제공량도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2025년부터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전국적 통합돌봄체제로 전환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이다.

<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수 및 서비스 수 추이(2020-2025년)

연도	대상자 수 (명)	서비스 제공 횟수 (건)	주요 변화 사항
2020년	350,000	약 1,200만 건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제도 출범
2021년	400,000	약 1,500만 건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2022년	430,000	약 1,700만 건	특화서비스(고독사 예방 등) 강화
2023년	460,000	약 1,900만 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2024년	480,000	약 2,100만 건	수행기관 확대 및 인력 보강
2025년	500,000+	약 2,300만 건 예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국적 통합체계 구축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 장애인돌봄서비스 현황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주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예로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 대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겹치는 만65세 도래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서비스 단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래 <표 3>에 있듯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10년간 약 77%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며, 개인예산제도의 시범 적용이 확대 중이다.

<표 3> 장애인돌봄서비스 추세 (2015-2025년)

연도	등록장애인 수(만명)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만명)
2015	250	6.5
2017	255	7.2
2019	260	8.0
2021	265	9.1
2023	268	10.3
2025	270	11.5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시간제, 영아종일제, 기관연계 등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주 사업은 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다. 맞벌이·한부모 가구 증가로 아동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도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기타 아동돌봄서비스로 다함께돌보미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대상의 방과후 돌봄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등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아동돌봄서비스 추세(초등돌봄교실; 2015-2025년)

연도	서비스 이용아동 수(만명)	초등돌봄교실 수(개소)
2015	5.2	2,800
2017	6.0	3,200
2019	6.8	3,600
2021	7.5	4,000
2023	8.3	4,500
2025	9.0	5,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주요통계.

그리고 아래 <표 5>에 있듯이,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까지 1,000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목표이며,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표 5> 아이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세(2015~2025년)

연도	센터 수 (개소)	주요 변화 사항
2015년	없음	제도 미도입
2017년	없음	시범사업 일부 지역에서 시작
2019년	156	법적 근거 마련, 제도 공식 출범
2020년	270	전국 확대 시작,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목적
2021년	450	지자체 중심 설치 확대
2022년	650	온종일 돌봄체계와 연계
2023년	903	정부 목표 초과 달성, 틈새돌봄 수요 대응 강화
2024년	1,050 (추정)	복지부·지자체 협력 확대
2025년	1,200+ (목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목표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정책 자료

4) 기타 돌봄서비스(일상돌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한국 돌봄서비스의 전체적인 문제점 및 과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와 통합적 접근이 정책의 핵심이므로 향후에는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기반 통합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돌봄서비스의 전체적인 공통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의 지역격차 심화

돌봄시설 및 전문인력의 분포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서는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여전히 재가서비스(집에서 받는 서비스)보다는 시설입소(시설 중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돌봄 인력의 질과 전문성 부족

돌봄종사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낮은 처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입이 어렵다. 이러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이용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서비스 분절과 통합의 필요성

서비스의 중복성과 분절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맞춤형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급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의의와 한계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분절을 해소하고, 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법은 1장 총칙,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모두 부칙을 제외한 7개 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토대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이 법의 시행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시행의 의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령,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보장을 하게 하는 AIP(Aging In Place)의 기반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에서 제시되겠지만, 제정된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통합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과 추진체계, 절차와 범위, 통합지원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추진 방향을 비교적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 특별법, 신법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해 둔 것은 그만큼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된 현행 법률이 많으며, 향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개별 사항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서동민, 2025).

넷째는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자들을 포괄, 확대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대상이었던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증 환자 등 전 연령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길을 터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지원, 주거돌봄 등 생애주기별로 분절되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통합하여 개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행정기관이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사 및 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일곱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등 기존의 분절된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한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한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서동민, 배지영 외, 2022; 유애정 외, 2022; 장민선, 2024).

첫째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운영역량에 큰 격차가 있어 서비스 질과 규모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큰 점이다.

둘째는 전달체계 개편이 미흡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법의 핵심은 통합이지만, 기존 복지-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없이 서비스 확장과 나열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는 통합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돌봄종사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넷째는 통합 시스템 자체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법이 목표로 하는 장애인, 중증 환자 등 포괄적인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제21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성격인 만큼 별도의 전담 조직은 필수적이므로

‘돌 수 있다.’보다는 ‘두어야 한다.’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의회와 승인을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서동민, 2025).

여섯째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도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현장의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 맺음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장민선, 2024).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돌봄지원 대상자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대상자로 각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을 개인 단위와 함께 가구 단위로도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1차적 돌봄관계인 가족관계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AIP 실현이나 재정부담의 절감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에서 주민등록지 중심의 지역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각 지자체가 상호 연계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 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상호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 수준에서 타 기관의 성격이나 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협력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혼합, 즉 케어믹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서동민, 2025).

셋째,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민관 협력의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자체 내 조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어 단순한 토론과 자문보다는 심의기능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통합돌봄 현장의 조직 정비를 통한 인력 확보 및 배치와 담당자의 보건복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선도사업의 지속성과 관련 사업 및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간 의사소통과 협업은 물론 외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공식화하여야 한다(서동민 외, 2022).

넷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수립이나 실태조사, 교육지원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기술하고 있으나, 통합돌봄지원 전반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아 자칫하면 재정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함께 지자체 단위의 돌봄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돌봄통합지원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재정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며, 일종의 구매자로서 재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도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역할도 중요한데,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광역의 역할은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추진성과 관리 등 간접적 사업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광역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중앙정부의 공식적 재정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광역 간 재정 자립도가 상이하므로, 광역 내에 존재하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 매우 다르고 격차도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상당수 기초 및 광역 지자체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현장의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홍보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안을 빨리 만들어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 내용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불과 반년도 남겨 놓지 않은 현시점에서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홍수, 서동민, 윤난희, 윤성훈, 전승연(2021).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방향(의료·돌봄 통합체계로의 개편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4).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서동민, 김옥, 문성현, 이용재, 고영, 김창오(2022). 의료·요양·돌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운영체계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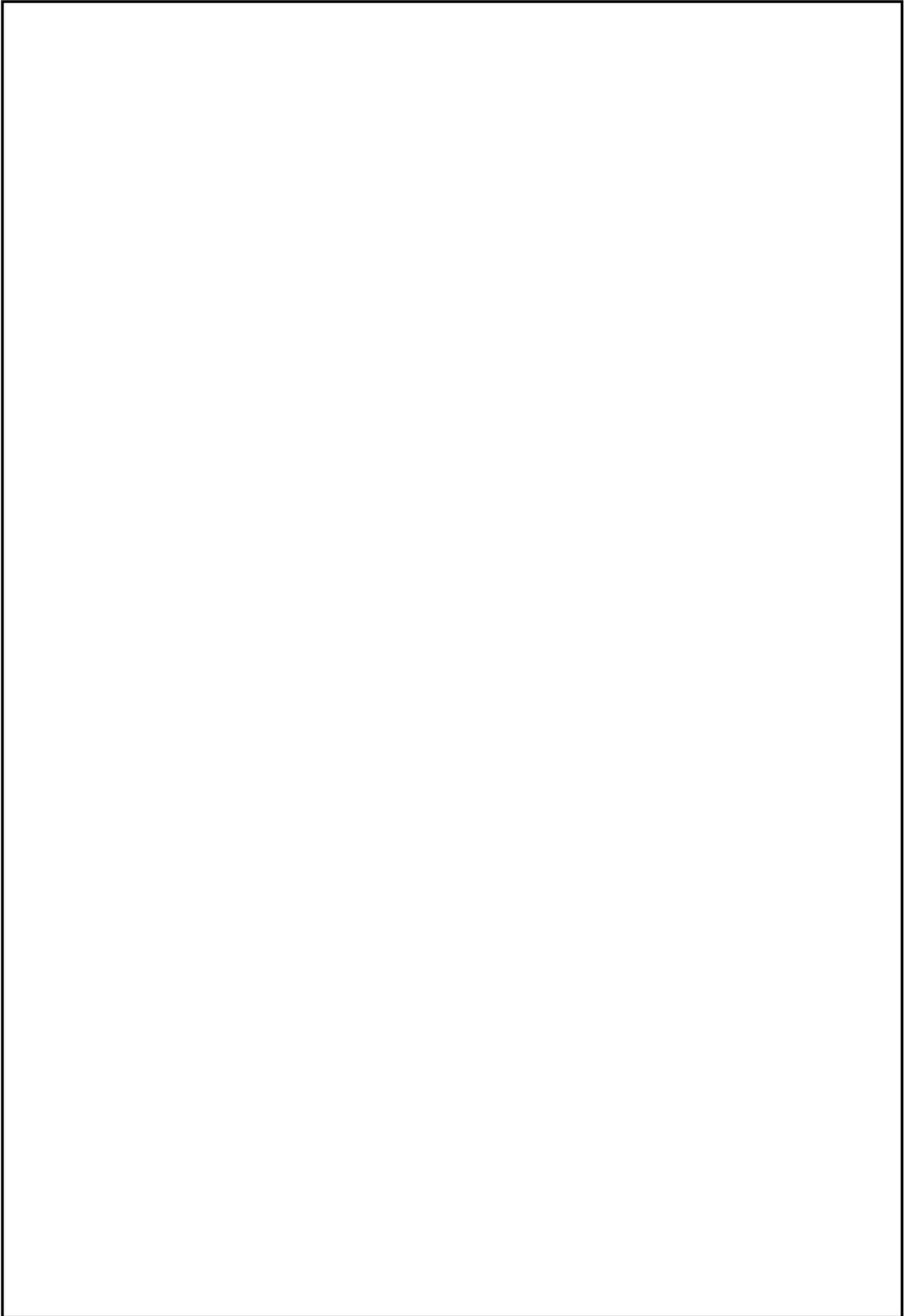
서동민, 배지영, 박은희, 허선영(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인식과 협업체계 형성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10(1). pp.63-88.

서동민(2025).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5년 2월 통권 제340호. pp.4-23.

유애경, 최재우, 이기주, 변진옥, 방효중, 박현경, 이현지, 김세진, 김희성, 어유경, 강혜규, 주하나, 전용호, 유원섭, 윤주영, 유기봉(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4차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민선(2024).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주제발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반 마련(정책포럼자료집). 2024년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세종시, 대한민국.

WHO(2015). WHO global strategy on peoplecentered and integrated health services. European Union Help Age International East Asia/Pacific Regional Office. Community-based social care in East and Southeast Asia.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마을과 교회의 협력 방안

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마을과 교회의 협력방안

Collaborative approaches between community and churches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2025-10-23

● 신앙공동체

● 지역사회 통합돌봄

● 허브 구축

목차

- 1 문제 정의 및 현황 분석
초고령사회와 돌봄 공백의 심각성
- 2 국가 돌봄 시스템의 한계
법과 제도의 경직성, 지역별 격차, 재정 문제
- 3 왜 교회인가? - 신학적·역사적 토대
성서의 돌봄, 성공회 신학, 강화 성공회 역사
- 4 교회 통합돌봄 허브
비전과 핵심 개념: 전인적 돌봄, 관계의 회복
- 5 민·관·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력 파트너 및 역할, 운영 모델
- 6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부천 약대동, 강화 성공회, 서울 마포구, 단비교회
- 7 단계별 로드맵
준비, 파일럿, 본격 가동, 확산 및 심화
- 8 기대효과
지역사회 차원, 교회 차원
- 9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재원 다각화, 인력 양성, 교회 공간 활용
- 10 결론: 새로운 부흥을 향한 첫걸음

문제 정의 및 현황 분석: 위기에 놓인 한국사회

- 저출산: 2022년 0.78명 → 2023년 0.68명
- 고령화: (속도)
 - 2025년 20.3%(초고령사회 진입)
 - 2045년 37.0%(일본 능가 세계 1위), 2072년 47.7%
- 노인 빈곤율: 40.4%,
- 2025년 1인가구: 51.9% 예상
 -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4.2%)
-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 22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 OECD 국가비중 평균 9.5%, **한국 9.7%**
- 의료비 증가, 건강불평등의 증가
 - 의료체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 대두
 - 필수의료,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이슈



국가 돌봄 시스템의 한계

🔧 법과 제도의 경직성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포용하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 발생:

- 64세 위기 가정
- 소득 기준 초과 차상위계층
- 서류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

"돌봄은 공적 책임으로 전환될 때, 누군가가 빠져버릴 수 있다."

📍 지역별 격차와 재정 문제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의지에 따라 서비스 질에 큰 차이 발생:

- 도서·농어촌 지역의 취약성: 전문 인력 확보, 원거리 교통, 응급 대응 시스템 미흡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율이 **2.1%**에 불과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실현의 어려움

🧩 분절적 서비스와 관계의 부재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통합적 케어 어려움:

- 의료, 요양, 주거, 일상 지원 등 서비스의 기관별 분리
-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깊은 '관계' 형성 어려움
- 고독감 해소 미흡

"각 서비스 제공자가 독립적인 '섬'이 되어버린 돌봄 시스템"

❤️ 영적 돌봄의 공백

신체적·물질적 필요는 채울 수 있으나, 인간의 깊은 실존적 고통과 영적 갈망에 응답 불가:

- 삶의 의미 찾기
- 죽음의 두려움
- 존재 가치 상실감

"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유하고 본질적인 사명의 영역"

왜 교회인가? - 신학적·역사적 토대

교회의 돌봄 사역은 국가 시스템과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돌봄

- 예수님의 통전적 사역 모델:** 가르치심, 복음 선포, 그리고 치유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지상 사역
-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명령:**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곧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는 신앙 행위임을 명시
- 참된 경건의 정의:**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선언
- 돌봄 공동체의 성경적 기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초대교회의 구제 공동체가 "모든 것(재산)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기 신앙공동체는 경제적 상호부조와 음식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구조를 형성했다
- 디아코니아로 발전**
'디아코니아'는 '섬김'(service)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자, 병자, 나그네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형태로 발전했다. 특히 집사(διάκονος, deacon) 직분은 이런 섬김 사역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예: 사도행전 6장).

교회의 돌봄 전통

- 전인적 구제운동:** 한국교회의 의료 돌봄은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의료선교(medical mission)**로부터 기원한다. 이들은 단순한 의료활동이 아니라 복음 선교와 사회적 자비행위를 결합한 전인적(holistic) 구제운동을 추구했으며, 한국 근대의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선교 초기 의료로 선교 기반 구축:** 1880년대 후반 조선은 서구 선교사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의료 선교사들은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한국 사회에 진입하였다. 의사로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이들은 질병 치료를 통해 조선 왕실과 민중의 신뢰를 얻고 복음의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학의 도입, 의료교육의 제도화, 빈민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 기독교의 "치유와 구제의 사명"으로 계승되었다.
- 장기려박사: 의료협동조합운동 개척**
1968년 장기려 박사가 부산에서 시작한 **정심자의료보험조합(Blue Cross Medical Cooperative)**은 한국 최초의 민간 자발적 의료보험조합이자, 훗날 국민건강보험의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된다. 그 의의는 사회경제적, 신앙적, 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깊다.

교회: 통합돌봄 허브 - 비전과 핵심 개념

비전: "교회가 지역사회 돌봄의 심장이 되다"

강화되어 흩어져 있는 22개 성교회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돌봄의 '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장이 몸 곳곳에 피를 보내 생명을 유지하듯, 교회 네트워크가 강화된 전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체적인 돌봄을 흘려 보내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인적 돌봄 (Holistic Care)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뱡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돌봄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신체적 돌봄

의료, 간호, 복약 지도, 재활 지원

정서적 돌봄

심리 상담, 우울증 관리, 치매 예방

영적 돌봄

영성 회복, 임종 돌봄, 예배·기도

사회적 돌봄

사회적 고립 방지, 세대 간 교류

관계 중심의 '서로 돌봄'

일방적인 시혜와 수혜의 관계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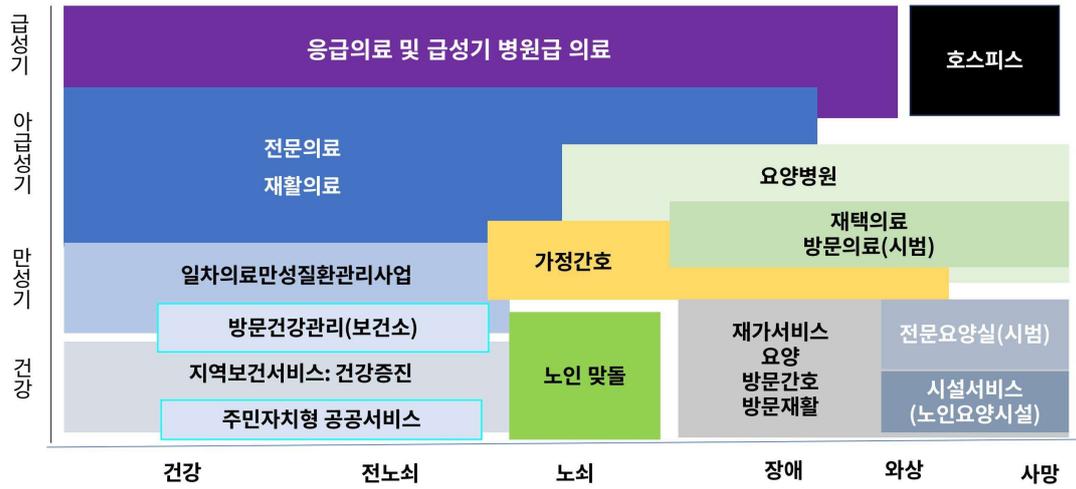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마태복음 10:8

선순환 구조

돌봄 수혜자가 수동적인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는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작은 능력으로 다른 이를 돕는 '돌봄 제공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구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일본에서 포괄케어센터의 80%는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10년전 70%에서 최근 80%로 더 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기획 예산 지원을 맡고, 직접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돌봄 성공하려면...“주민이 주도, 지자체에 권한 줘야” - 한...
 [한국농어민신문 손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78번으로 통합...
www.agrinet.co.kr

3 Community와 3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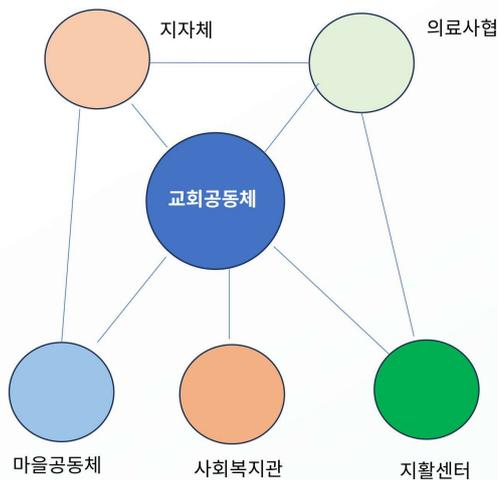
-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3 Community와 3 Care를 조합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

Community Care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by the Community)	지방분권화 (Decentralized Community)
보건의료 서비스 (medical & health care)	지역사회에서 치료	치료적인 지역사회	의료의 지방분권화
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long-term care & social care)	지역사회에서 돌봄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돌봄 참여	돌봄의 지방분권화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지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	지지적인 지역사회	주민자치화

출처: 김승연박사, 2018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

9

민·관·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단 노회, 시군구별 교회 연합

- **허브 역할:** 읍·면 단위 지역 돌봄 거점 제공 (교회 공간 개방)
- **인적 자원:** 자원봉사자 (성도) 발굴, 교육, 파견
- **영적 돌봄:** 사목적 방문, 상담, 임종 돌봄 등 영적·정서적 지원

지자체

- **행정 지원:**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협력
- **재원 연계:** 공적 자원 (국비, 지방비) 연계 및 보조
- **정보 공유:** 복지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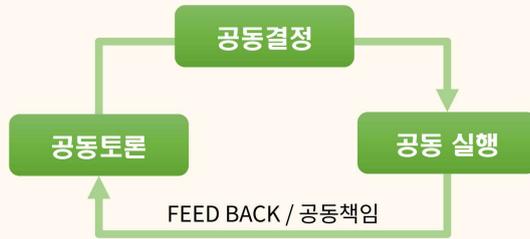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료 서비스:** 방문진료,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자문:** 의료·복지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지원

민간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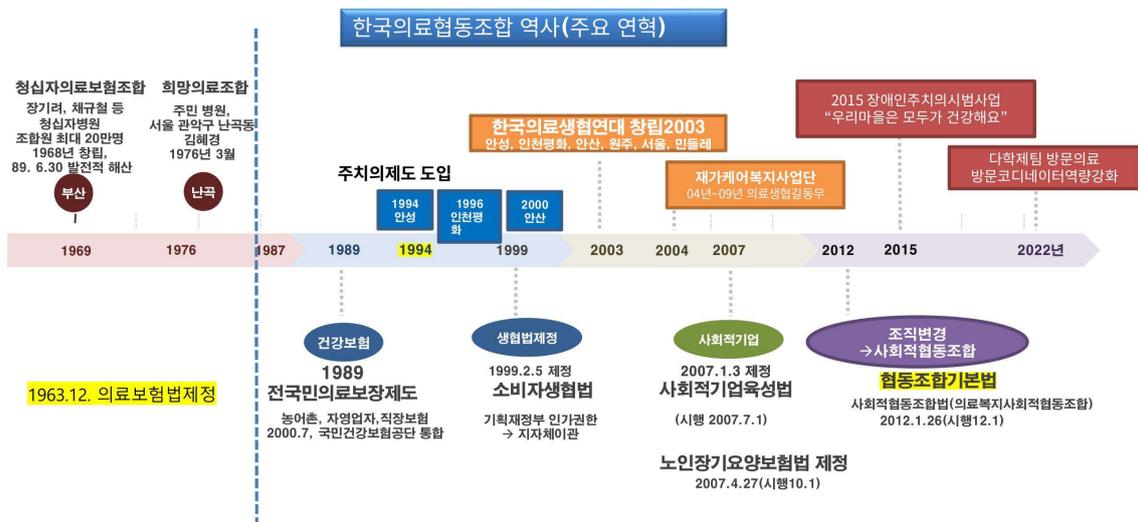
- **의료 연계:**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 **전문 인력:** 공공보건의, 간호 인력 협력

돌봄 거버넌스의 원칙



- ❖ Good Governance의 핵심은 시민사회-행정-기업(지역기업) 3자의 수평적 파트너십이며,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실행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
- ❖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 기업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실체로서 자리잡아야 함
- ❖ 행정은 대규모 공사 등은 지역 외부 대기업의 실행역량을 활용해야 하지만, 서비스업 특히 대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육성과 시민사회의 실행력 강화를 후원해야 함
- ❖ 행정은 이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내” 하면서 시간을 부여해야 함
- ❖ 시민사회와 지역기업은 구체적인 실행역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함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회원조합 현황



- 01** **경인지역 12곳**
 안성, 인천평화, 안산, 용인, 성남, 수원, 시흥희망, 행복한마을, 느티나무(구리), 부천, 화성, 양평
- 02** **서울지역 7곳 강원 (원주)1**
 서울(영등포), 함께걸음(노원), 살림(은평), 마포, 건강한(성동), 성북, 정다운(관악)
- 03** **중부(충청, 대전, 경상) 7곳**
 만들레(대전), 홍성, 대구(북구), 위드(서구), 경남산청, 부산돌봄, 상주
- 04** **호남 3**
 전주, 익산, 광주

(빨간 표시: 농촌, 농촌 자원 의료사협)

한국의료협동조합의 현황

의료사협 설립 추이와 현황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의 성과



국내 최초 의료협동운동 (청십자운동)을 펼친 장기려박사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의료의 공공성을 세우는 일에 나서다



마을공동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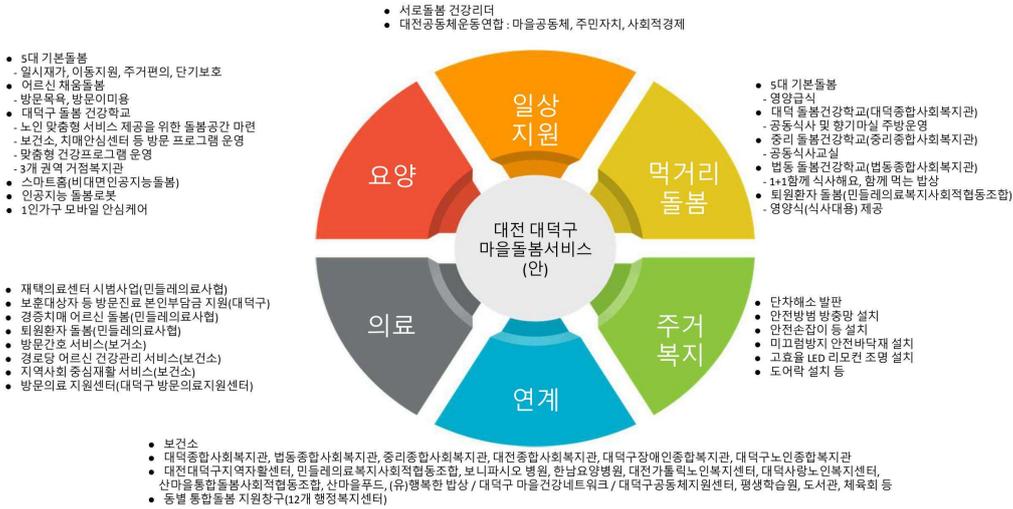
돌봄서비스 전달주체

마을공동체의 중요성 : 지방분권, 주민자치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대전 대덕구에서의 통합돌봄 네트워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사회연대경제 (Social Solidarity Economy)

UN & ILO,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부산, 협동조합주간 행사 동영상 (2023.7.1)

교회가 할 수 있는 돌봄 역할

-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교회는 신속하게 지원을 조직하고 제공
(광염교회, 소망교회 등)
- **돌봄 서비스 자원 봉사**: 가사 업무 지원, 방문 돌봄, 식사 제공, 산책 및 병원 동행 등의 자원봉사 활동
(현재 시흥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 활동 수행)
- **정서적, 영적 돌봄**: 교회는 신앙을 통해 돌봄대상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예배,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영적인 충전 기회 제공(지역의 제사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 **교회 공간 활용**: 교회의 시설을 활용해 돌봄 대상자들을 위한 모임, 행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회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돌봄활동 제공 가능(행복한 교회의 공동육아 장소 제공)
-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 교회가 지역의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대상자에게 더 포괄적인 지원 제공 가능(은평구 **행복한 교회**: 기관, 교회, 주민의 삼자 협력 & **부천 새롭교회**: 지역 에큐메니칼 연대)

21

통합돌봄과 지역교회 참여

- 통합돌봄의 정신과 목적, 방향과 내용은 **교회가 고백하는 복음과 하나님나라의 정신, 내용과 일치**
- “돌봄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섬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제주대 신용인 교수)
- **교회의 자원**: 통합돌봄에서 **지역교회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갖춘 곳**
- 교회는 신앙에 토대를 둔 **자발적 봉사와 헌신, 조직력**이 있고, **인적, 물적, 공간적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공신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지님.
- **교회의 사회적, 공적 역할**: 통합돌봄사역으로 **교회의 내적차원(예배, 성경공부, 기도, 성도의 교제 등)** 뿐아니라 **외적차원, 즉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의 역할 수행 및 공적책임을 활성화**해야 함.

22

민·관·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정기적 실무협의체

- ✓ 지자체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
- ✓ 서비스 대상자 의뢰 및 정보 공유, 공적 자원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
- ✓ 주기적인 회의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의 돌봄 요청을 받아내고, 교회의 유연한 돌봄망으로 풀어

통합 사례회의 운영

- ✓ 지역 복지기관·자활센터·의료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
- ✓ 정기적인 통합 사례회의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함께 수립
- ✓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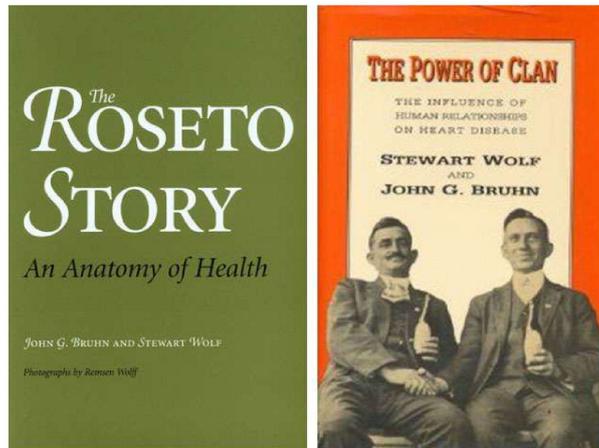
교단 노회 및 사회복지재단

- ✓ 사업 초기 모델 개발과 운영 매뉴얼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 ✓ 교회 내부의 자신의 돌봄 전통을 현대 사회에 맞게 실천하는 방법을 지도
- ✓ 교수·훈련·지도 역할로 헌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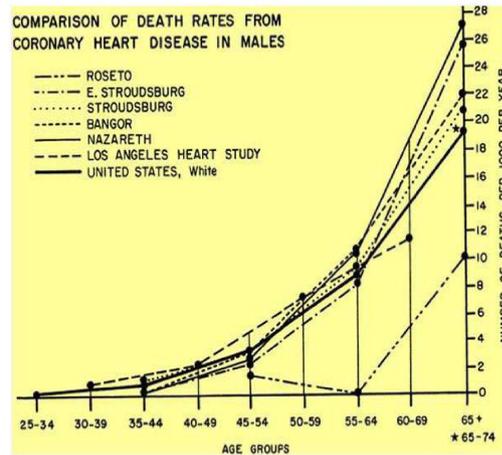
추동그룹의 전국적 활동

- ✓ 돌봄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여 전파하는 '추동그룹' 조직
- ✓ 교구 및 교단 간의 정보공유 및 경험 교환을 통해 운동 확산
- ✓ 이 운동이 강화도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 각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마을공동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탈리아 이민자 마을의 신기하게 낮은 심장병 사망율



로제토마을이야기

- 니스코 신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로제토 주민들은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죽으면, 이전에 있었던 갈등을 뒤로 하고 죽음을 함께 애도했으며,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식량과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그 가족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와 깊숙히 결합된 개인들이 꾸려가는 상호 부조의 문화는 실제로 힘이 되었지요.

독일 : 지역사회통합돌봄

독일은 비영리조직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 정비



디아코니아- 지정된 6개 비영리조직 중의 한 곳
 직원 : 60만 2천명, 자원봉사수 : 70만 예산: 1조 5000억원
 1848년 9월 개신교복지운동 비헤론 주창 : “이웃사랑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

독일 사례: 돌봄분야- 비영리조직 한정,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활용 강조
노원 돌봄SOS거버넌스: 시장기업 진입 제한, 협약기관 기준
 현장 돌봄사업의 추진 및 제도개선 활동에 도움을 줄 것임.

네덜란드 : 케어팜(사회적농장)을 통한 치매 관리

육체활동을 통한 장기기억의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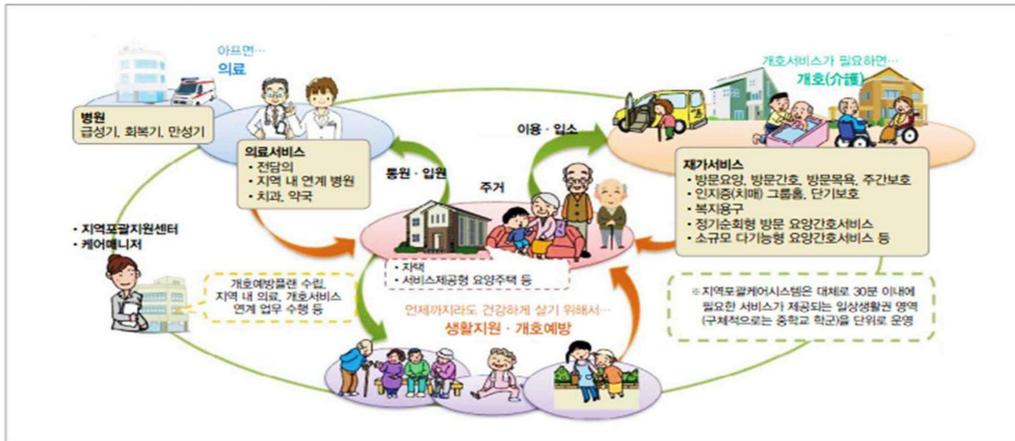


사회적농장 육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일본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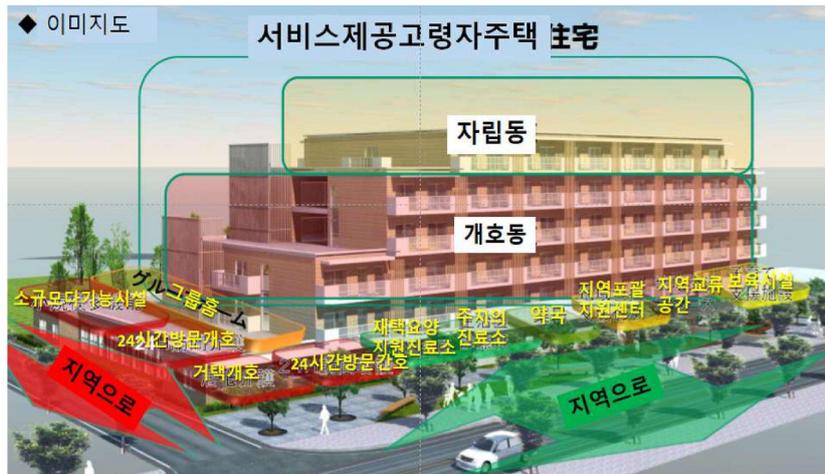
- ❖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만 아니라 돌봄을 실천하는 NPO, 협동조합등의 연대와 협력, 주민조직, 자원봉사 활용등 고령자를 둘러싼 지역사회 전반의 의료, 복지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됨.
- ❖ 지역포괄지원센터
- ❖ 방문개호지원센터 / 방문간호스테이션 / 케어메니저 사업

그림 1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체제도



자료: 유애정, 김재윤, 황지영 2019.

의료, 돌봄, 주거 결합 지역포괄케어 모델 거점 형성 : 카시와 市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미국 연방 의무감의 처방

성공의 3요소 vs 성취감의 3요소

관계

With whom can I connect more deeply?

봉사

What can I do to help others?

목적

What gives my life meaning?

진정한 웰빙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타인과 연결되고 기여하는 삶 속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WHO 가이드라인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연구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국내 교회 기반 돌봄 성공 사례

부천 약대동 모델

약대중앙교회, 새롬교회 등 3개 교회가 연대하여 마을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카페, 마을 건강리더 교육 등을 운영.

특징: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공동체 구축, '문화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 부엌, 치유 텃밭, 한글교실 등을 운영.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모델

강화 온수리성당에서 돌봄과 교인 장례 집행을 통해 마을돌봄을 실천해옴. 강상마을사회적 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사협과 협력하여 방문의료, 돌봄 등 통합돌봄을 실천해옴

서울 마포구 대흥동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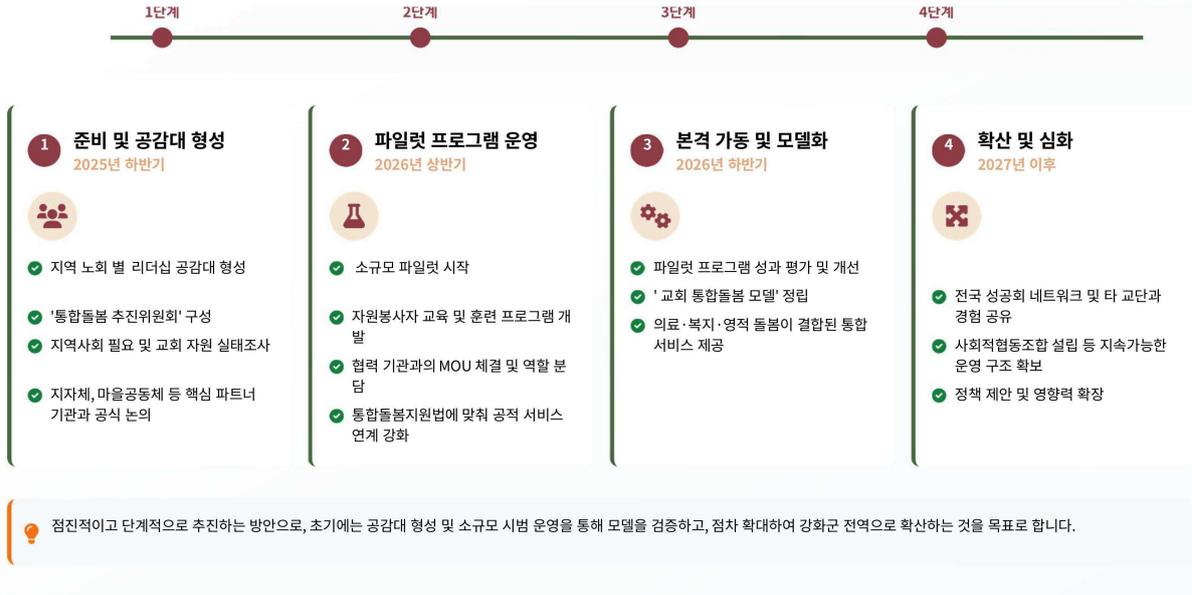
7개 교회가 연합한 '대흥동종교협의회'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율이 64%에 달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위기 가구 발굴, 생명지킴이 캠페인 등 마을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징: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넘어 서로 연대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비교회: 마을돌봄의 기반



단계별 로드맵



기대효과 - 지역사회 차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과 제도의 경계에 있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 이웃들을 교회의 유연한 돌봄망으로 품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예방 중심의 전인적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인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비 및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동체성 회복**
 고립된 개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도와주는 문화를 재구축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회복합니다.
- 세대 간 연대 강화**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단절된 세대 간의 소통과 연대를 회복하고, 경험이 서로 다른 이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합니다.
- 지역사회 재생**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마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는 도시 마을에 '함께 늙어가는 것이 행복한 강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의 희망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합니다.

기대효과 - 교회 차원



교회 본질의 회복

담장 안에 머물던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 정체성 강화

성육신적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성공회의 고유한 신학과 전통을 현대 사회에 맞게 실천함으로써, 성공회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함으로써, "교회가 달라졌다",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지역민의 인정을 얻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합니다.



개별 성도의 신앙 성장

성도들은 주일 신앙을 넘어 일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며 삶의 깊은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됩니다.



선교적 증거의 확장

돌봄 사역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교적 증거가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이 돌봄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결되고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이 사역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두 가지 부흥'을 함께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자원 다각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 회원 개발, 기업 사회공헌기금 연계 등 재원을 다각화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모델을 일부 결합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의 전환 고려

지속 가능한 자립적인 자원 구조를 위해 현금 및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기회 제공



인력 양성 및 관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정기적인 영적·정서적 지지(슈퍼비전) 시스템 마련

전문성을 갖춘 실무 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채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함

인력 양성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교육자이자 조직가로의 '추동그룹' 조직 및 활동



교회 공간의 적극적 활용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중에 비어 있는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 거점으로 적극 개방

교회 공간을 사랑방, 상담소, 쉼터로 활용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

오래된 교회 건물의 재활용 및 적극적인 공간관리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점 창출

결론: 새로운 부흥을 향한 첫걸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와 **지역사회의 돌봄 위기**라는 두 가지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 돌봄의 기회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위기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 교회의 부흥

지역기반 통합돌봄 허브 구축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계승하고, 성공회의 'Via Media' 정신을 구현하며,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적 과제입니다.

“ 성서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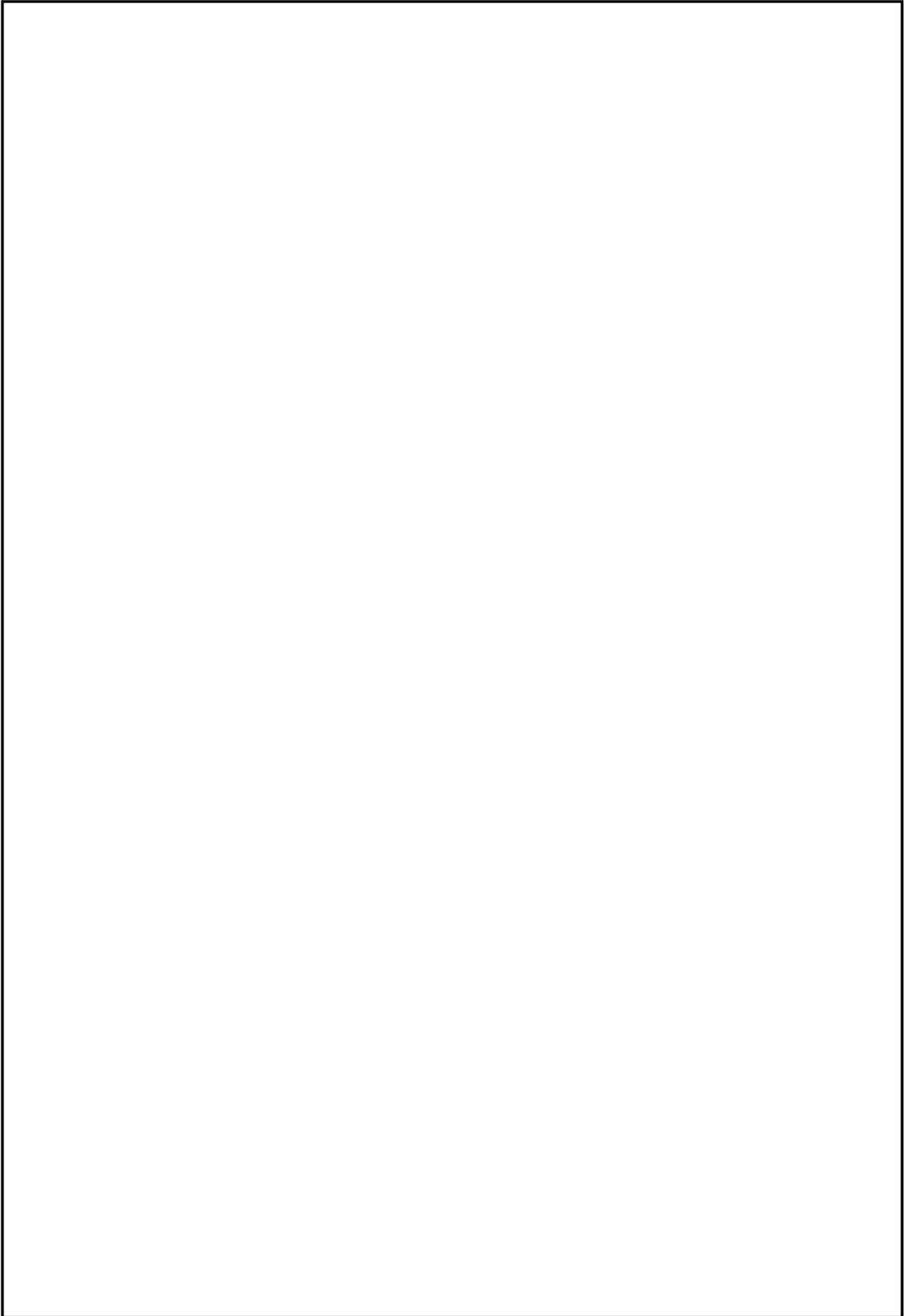
"오래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메마른 땅이 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 140년의 역사

140년의 사회선교 전통이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 서 있는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갈 방향

이 제안이 지역 돌봄 사역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례발표 1 - 곡강교회]

곡강교회 이야기

2025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현대, 돌봄

1

곡강교회는...

1957년 추석날 첫 예배를 드림



바다에 떠내려온 통나무로 교회를 짓다 (1971년)



2

곡강의 현재와 미래

1997년 완공된 현재 예배당



미래의 자리



3

- 40년간 전형적 농촌 미자립교회로서 살아오다.
- 1957년~1998년까지 20여분의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
- 가장 외진 마을 건너편에 한동대가 들어오다.
- 시내에서 성도들이 들어오다.
- 도농복합형 교회로 자리잡아오다.
-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4

사명 선언문

- 곡강교회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
- 첫째, 곡강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가족이 된다.
우리 교회는, 농촌과 도시의 다양한 성도가 모여서, 가족적 삶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
- 둘째, 곡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영성으로 양육된 사람을 세우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
- 셋째, 곡강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과 이웃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된다.
- 넷째, 곡강교회는,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공동체가 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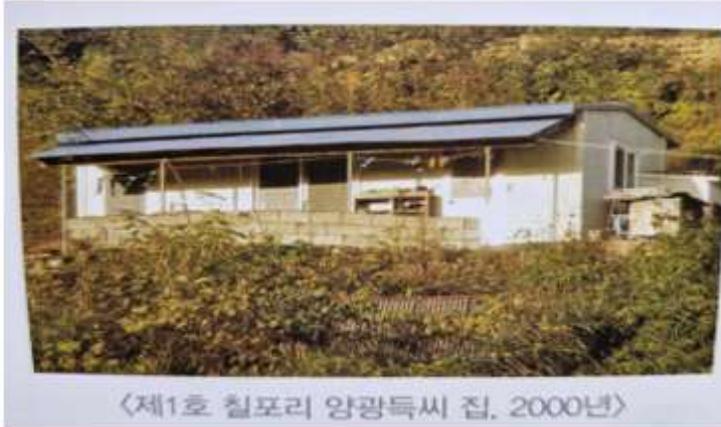
선교회 교회로 나아가다.

1. 작은자 선교회
2. 새하늘 새땅 선교회
3. 문화 선교회
4. 어르신 선교회
5. 군 선교회
6. 열방 선교회

* 지금은 선교회란 이름을 모듬으로 바꾸어 운영중

6

작은자 선교회 - 사랑의 집짓기를 시작하다.



7

16채의 집을 지어 드리다.



8

새하늘 새땅 선교회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며 건강한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다.



9

문화 선교회

들판음악회



문화 답사



10

어르신 선교회 –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다.



11

군 선교회



12

열방선교회 - 곡장에서 세계를 품다

선교사 파송



선교바자회



13

나오는 말

- 지역 섬김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다.

14

[사례발표 2 - 성락성결교회]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성락성결교회 사례발표

Presented by 마재열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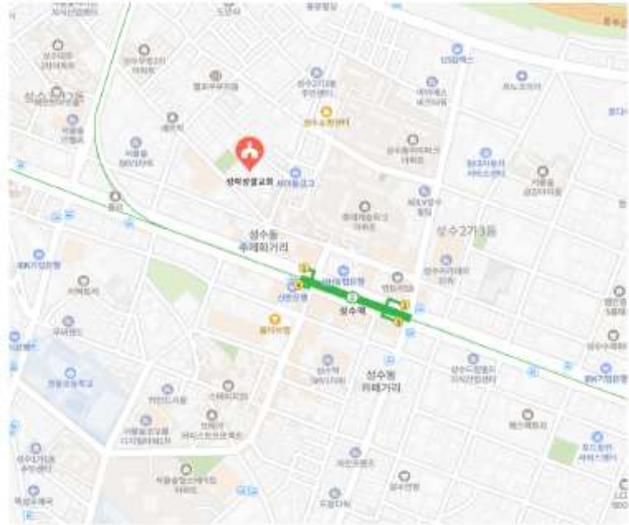
말씀실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이며 인류와 세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부름 받았다.**

말씀실공동체 성곽성결교회

성수동 역세권 개방과 소통



말씀실공동체 성곽성결교회

길을 내주는 교회



말씀실공동체 성곽성결교회

남-북



동-서



말씀실공동체 성곽성결교회

1-2 층 개방

기도실



베아투스 카페



화장실



말씀실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교회 시설 대관



말씀실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지역사회 돌봄 활동



향림공원



생수나눔

지역사회 돌봄 활동



아동 /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부



지역사회 어르신 초청 식사 섬김

지역사회 돌봄 활동



노숙자텐트촌 방문 섬김



독거노인 점심식사 대접

말씀실공동체 성직성경교회

지역사회 돌봄 활동



이웃사랑 생활용품나눔



성동경찰서 유치장 방문봉사

말씀실공동체 성직성경교회

지역사회의 일원 선한 이웃

세상에 보냄 받은
제자 공동체
(요 17:18)



[사례발표 3 - 약대중앙교회]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약대중앙교회



1984년 약대중앙교회 설립



2024년 Beyond Me, You and Us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01 예수 안에서

“약대동 교회 연합”

1. 맞선교회 2. 부천순우리교회 3. 서양교회 4. 새동교회 5. 신선중앙교회
090-4377-0122 222-9488 222-3820 878-0914 872-7825

6. 여흥다운교회 7. 약대교회 8. 약대중앙교회 9. 광릉순교회 10. 천선중앙교회
071-1442 618-8736 877-0282 328-3491 072-8403

이웃,
생각만해도 미소짓는 이름



02 함께

“함께하는 우리” WITHUS 봉사단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목적으로 하며
이웃사랑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사명으로 한다

도배 및 정리수납



수혜 가정 108 가정



소요 예산 11,821,570원

방역 및 방충망



수혜 가정. 824가정

소요 예산 5,663,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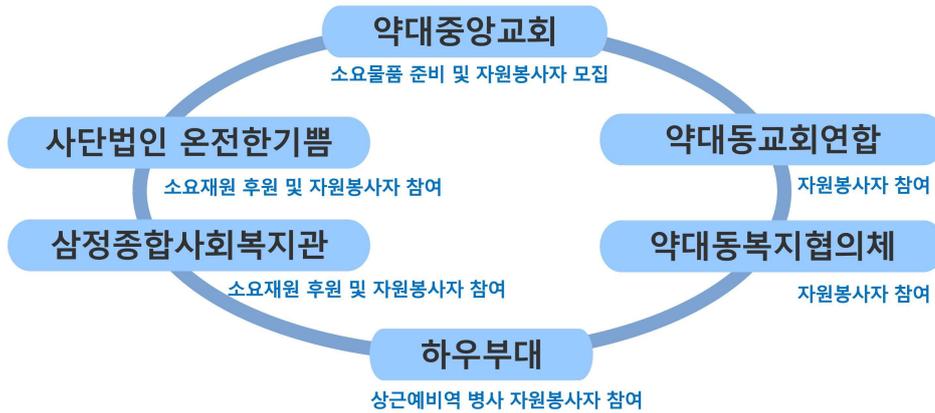
방풍 - 연탄 나눔



수혜 가정
268가정

소요 예산
11,152,700원

연합봉사네트워크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연평균)

<p>환경개선 수혜가정 109가정</p>	<p>소요예산 2,600,000원</p>
<p>참여봉사자 150명</p>	<p>비고 기부물품(연탄, 장판, 가전제품등)은 제외된 실 지출금액</p>

02 지어져 가는

이웃사랑 결혼식



수혜가정
13가정

국적
한국, 중국, 이스라엘, 베트남 등

여러가지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참여 해결

제공사항

- 예식장 : 약대중앙교회 본당
- 피로연 : 교회 인근식당
- 예복대여:드레스/턱시도대여
- 주례/사회자/반주자/특송팀
- 부케/청첩장/접수대/Photo board : 사전 영상제작
- 사진촬영/액자, 앨범
- 혼수품 : 고급 이불세트



마을 장례



12명

주소지 : 부천 및 서울

영안실 : 다니엘 병원 및 대성병원

집례자 : 이세광 목사 김흥성 목사 등



마을장례 지원사업

무연고자나 홀몸 어르신들의 장례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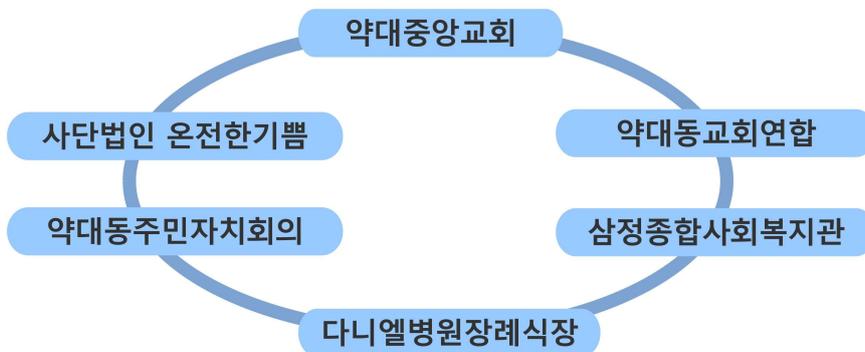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 소외계층에게도
마을 장례서비스를 제공

2018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12회의 마을 장례를 집례

현재까지는 지역 복지관이나 장례식장에서
의뢰되는 사례자만으로 대상자가 국한됨



연합봉사네트워크



홀로어르신 친구되어주기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신체 인지기능 저하, 심리적 공황, 고독사 등이 우려됨

지역 공동체와 연대를 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함

홀로어르신 친구되어주기

활동내용

- 활동원칙 : 대상자 10명, 봉사자 10명 1대 1 매칭
- 대면활동 : 월 1회 이상 방문 나눔
- 비대면활동 : 주 2회 1대1 매칭 말벗, 안부 나눔

사업실적



총54회

3분은 소천하셔서
부천마을장례단에서
무연고 장례 집례



꿈이 청소년 심야식당

청소년을 위해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밥상을 준비
마음의 쉼을 제공하는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에 양식까지 챙겨주는 마을
배움터

약대동 교회연합과 두레 생협이 참여 운영
2018년 초기에 참여한 대상학생이 수년 전부터 봉사자로 참여
부천에 사는 8세~19세 청소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



꿈이 청소년 심야식당

① 따뜻한 저녁 한 끼
매주 화요일 18:00~22:00 간단한 무료 한식 메뉴, 도시락 배달

② 쉼이 있는 시간
- 책 읽고, 조용히 있고, 이야기 나누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저녁 공간

③ 작은 체험들
마을방송국 활동, 친구들과 소모임 활동, 소소한 축제나 영화 상영회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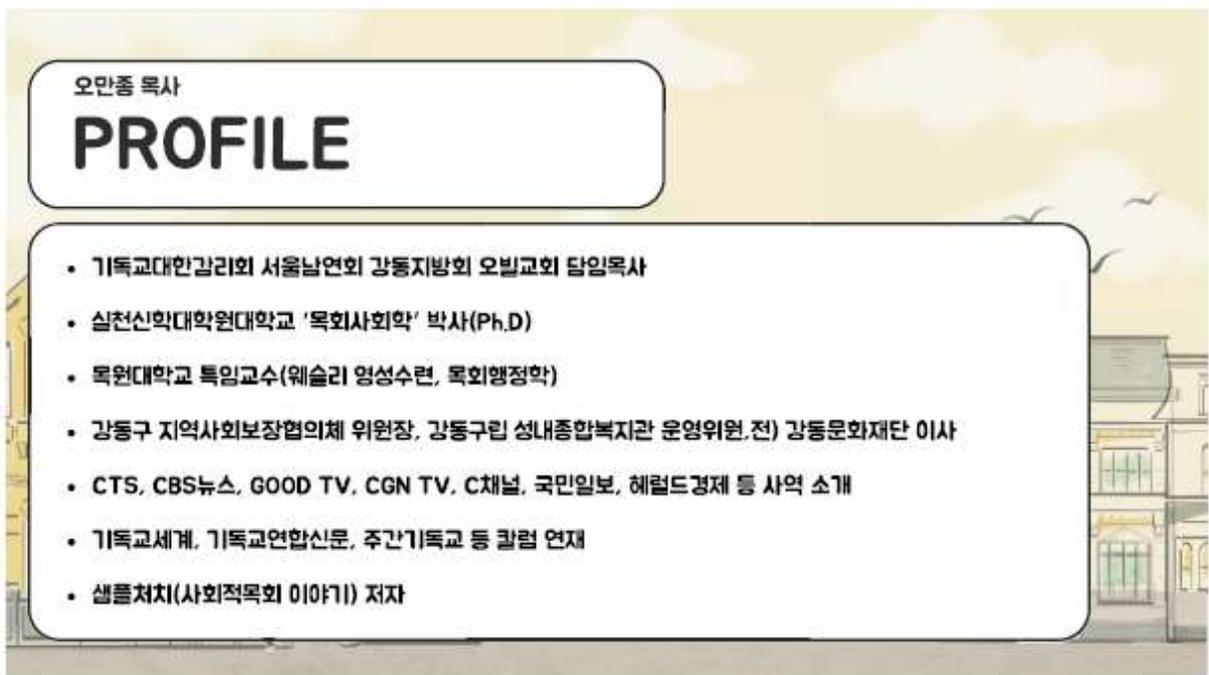
꿈이 청소년 심야식당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4 - 오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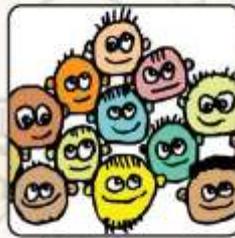
실천적 교회론 (하나님 나라 백성공동체)

- 에클레시아 :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모이는 교회)
-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흩어지는 교회)
- '예배', '설교', '성례전' 을 통한 부름 받은 공동체 (called out community)
- '교육' 과 '코이노니아' 를 통한 세움 받은 공동체 (called up community)
- '섬김' 과 '선교' 를 통한 보냄 받은 공동체 (called into community)
- 문화창조명령(창 2:15) + 지상대명령(마 28:18-20; 행 1:8)

사회적 목회



공공성



다양성



전문성

사회적 목회는 시대적 요청

- 효율적인 복음전도는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 '믿음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사회적이다'
- '복음은 사회적이지 않은 종교를 모른다'
-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다'
- '성화는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다'

사회적 목회 형태

- 공공신학, 마을목회, 선교적교회-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생태신학 등
- 사회적 목회 형태
 - ① 소동형목회 : 카페, 놀이방, 도서관, 콘서트 등
 - ② 복지형목회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노인돌봄, 복지관 등
 - ③ 지역사회형목회 : 마을목회, 지역운동, 지역사업, NGO 등
 - ④ 사회적 경제형 목회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 목회생태계 변화로 찾아가는 목회, 실교자, 비즈니스 영성 필요
- 자비량 목회(이중직), 일하는 목회자, 겸직목회, 일터사역자 등

마을은 나의 교구다! 일터는 나의 교구다!

- 지역공동체 :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 교회의 5가지 속성 : 레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 교회 안의 사역들을 밖으로 전개 (마을예전, 마을교육, 마을신교, 마을봉사, 마을전도)
- 일터에서 사회활동(Ministry in the Kingdom of God)
- Ex) 마을선교사 : 마을에 필요한 교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지역신문을'
- 일터부흥사 : 이웃에게 용기와 열정, 희망과 동기를(활력)
- 초기선교사 : 교육과 의료, 복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등

역사적 부흥운동

- 부흥운동은
- 복음전도운동, 성화운동, 박애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였다.
- 복음전도운동은 개인이 구원받고 변화하는 것이고,
- 성화운동은 개인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이고,
- 박애운동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은 개인의 회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개혁이 동반되었다.

실버사역 (하나님 나라까지 배웅하는 교회)



실버사역 (고아, 과부, 나그네 사랑)



말석으로 걸어가는 목회 - 공생애 3년의 법칙



독거노인 자조모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야기



문화예술 활동



기부와 후원활동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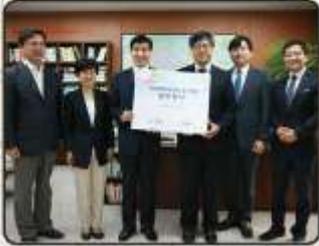
사회자본 (하나님 나라의 자원)

- 인적자원, 물적자원, 시설적자원, 제도적자원, 행정적자원 등
- 그리스도인 = 국민, 시민, 주민 +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 27:40)
- 세속적 종교는 자기 구원만을 주장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성공과 영광을 구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그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포기과 내려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교회다.
-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적정신학)

NGO 사역(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민관 거버넌스 (교육, 상담, 캠페인, 유가족 돌봄)



생명존중교육활동 (인성, 공동체성, 사회성)



다문화 가정 결혼예배



직장선교, 학원선교예배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축제 (주민센터, 복지관, NGO, 카페, 교회)



정치 거버넌스 (민관협치, 의사결정)



오빌교회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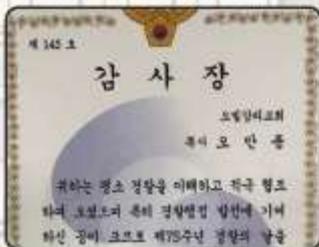




마을예전



공공사역 (공공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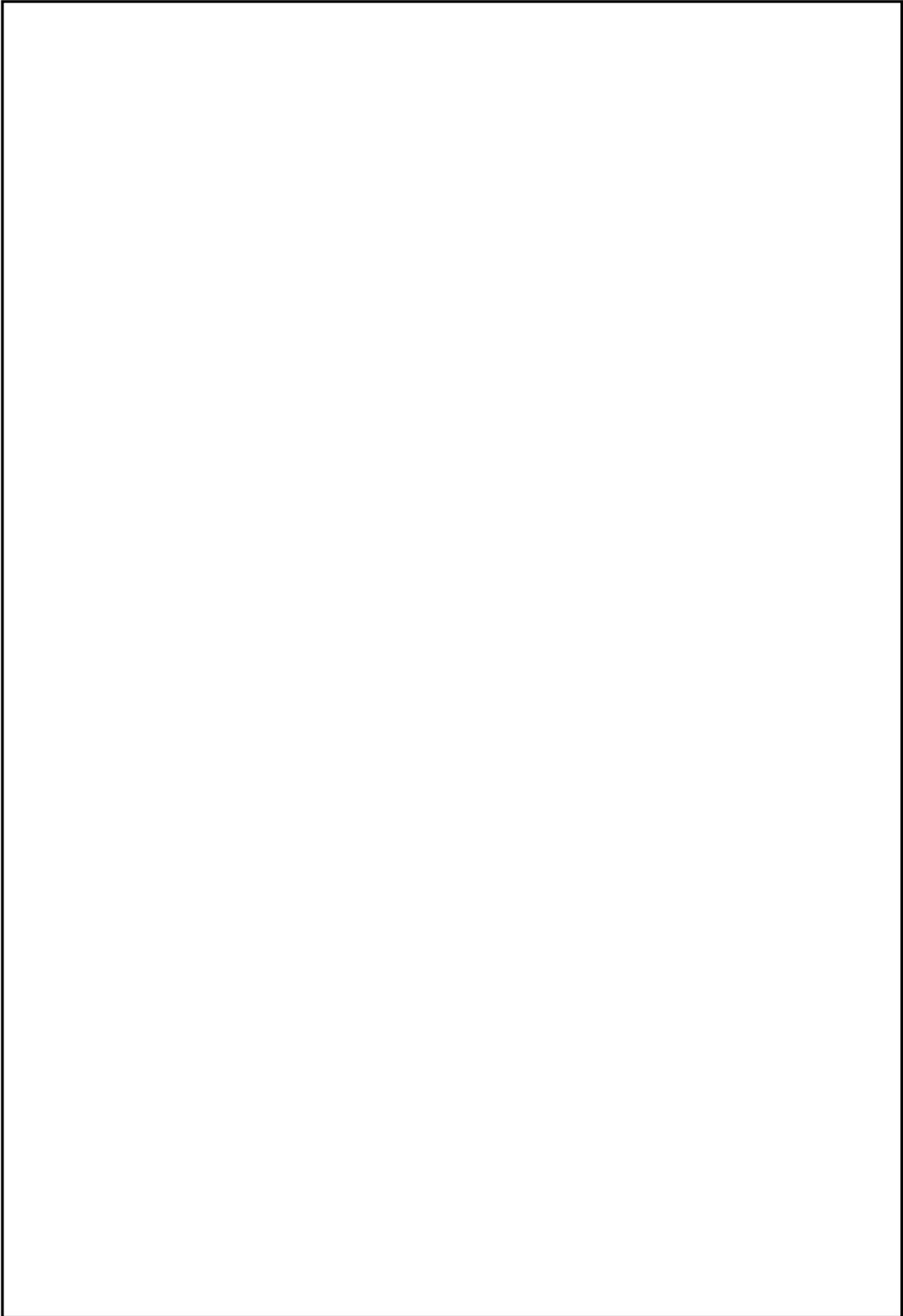
사역소개 (샘플처치)



웨슬리 사회적 목회

BY: 오만종 목사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5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 이웃, 환대, 돌봄

www.cemk.org